

---

# 2025 심비우스 독서골든벨

## 문제 예시

< 진중권, 『미학 오디세이1』 >

---



일송자유교양대학 의사소통교육센터

## 1. OX 문제

※ 다음 문제를 잘 읽고,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쓰시오.

1) 다빈치는 새의 비상(飛上)을 연구하여 최초의 날개를 고안하였다

☞ 정답: (O)

2) 미켈란젤로는 예술엔 반드시 따라야 할 보편적 법칙이 있다고 믿었다.

☞ 정답: (X)

3) 다빈치는 예술의 목적을 외부 세계의 과학적 인식에 두었다.

☞ 정답: (O)

4) 대상의 크기를 대상까지의 거리와 반비례로 줄여 가면서 평면 위에 깊이를 만드는 회화의 표현 방법은 원급법이다.

☞ 정답: (O)

5) 그림 속으로 뻗은 선들의 간격이 점점 좁아져 만나게 되는 한 점을 '소실점'이라고 한다.

☞ 정답: (O)

6)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프랑스의 푸생, 스페인의 벨라스케스, 이탈리아의 보티첼리는 17세기 회화의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었다.

☞ 정답: (X)

7) 고전주의 예술은 바로크 예술과 달리 윤곽은 뚜렷하지 않고, 묘사는 걱정적이며, 구도는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 정답: (X)

8)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만드는 기술은 가르칠 수 있어도 운율을 만드는 기술은 가르칠 수 없다고 했다.

☞ 정답: (X)

## 2. 단답형 주관식

※ 다음의 문제를 잘 읽고 정답을 적으시오.

1) 다방면에 능한 보편인(universal man)이 르네상스의 이상이었다면 이 사람은 그 이상의 실현이었다. 그는 회화는 물론 조각도 할 줄 알았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는 학자이자 건축가였고 또 기술자이자 발명가였다. 인체의 구조를 알기 위해 그는 마법사라는 위험한 의심을 받아가며 30구 이상의 시체를 해부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8음절로 쓰시오.

☞ 정답: 레오나르도다빈치

2) 중세까지만 해도 ‘예술’이란 말은 기술과 학문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재미있는 조형예술은 ‘예술’에 끼지도 못했으며 기껏해야 천대받던 장인적 예술에 들어 가야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들어오면 조형예술은 ‘자유 교양(liberal art)’, 말하자면 학문으로까지 승격된다. 이 시기는 무엇인지 4음절로 쓰시오.

☞ 정답: 르네상스

3) 미술 기법 가운데 ‘이것’은 인물들을 어스름한 안개로 감싸는 기법으로 이를 이용하면 아스라한 안개 속에서 형체가 떠오르는 듯한 몽환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기법은 무엇인지 4음절로 쓰시오

☞ 정답: 스푸마토

4) 명, 암, 색, 입체, 형, 위치, 원, 근, 운동, 정지 등 10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은 다비친가 가장 믿었던 것으로 다른 감각기관에 비해 기만 당하는 일이 적다고 하였다. 이 감각기관은 무엇인가?

☞ 정답: 눈

5) 미켈란젤로는 신플라톤주의의 철학자로부터 영향을 받아 미를 따라 올라가면 초월적인 존재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고 자신의 예술을 통해 그 구원과 불명성에 이르기를 갈망했다. 미켈란젤로에게 영향을 준 이 철학자는 누구인가?

☞ 정답: 플로티노스

“위 문제 예시는 2025학년도 실전 문제에서 발췌”